

“백신 1개로 10명 접종 관건”...광주 모의훈련 진행

예진·접종·대기·위급상황 발생 가정 훈련 진행

26일 요양병원 부터 접종...1만4000여명 분 확보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방역당국과 경찰이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10명 접종 분량의 1개의 백신을 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 할 수 있도록 동선 등 꼼꼼하게 일정을 짜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광주시 방역당국과 경찰은 23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소화누리 요양시설 지하 강당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의료진이 요양병원을 방문해 접종하는 것을 가정해 예진실부터 접종실, 접종 뒤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30분 대기실, 응급치료 시설 장비 등이 갖춰진 공간에서 펼쳐졌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1번 환자가 들어서자 방역복을 갖춰입은 요원은 발열 여부를 확인 한

뒤 예진표를 작성했다.

또 접종대상자를 의사가 있는 예진실로 안내했으며 감기 등 이상 증상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했다.

특별한 증상이 없음을 진단한 의사는 접종대상자를 접종실로 안내했으며 간호사의 2차 문진이 이뤄진 뒤 접종이 이뤄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접종대상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30분대기실’로 옮겨져 대기했다.

대기를 하던 중 접종대상자는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의료진은 환자를 임시응급실 침대에 눕힌 뒤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이어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량으로 환자를 옮겨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군 당국이 백신을 보건

소 등에 운송하는 모의훈련이 북구보건소에 1차례 펼쳐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제 접종에서 실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개의 샘플에 1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데 시간을 지체할 경우 3-4명 분량만 사용하고 폐기할 수 있어 손실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꼼꼼하게 일정을 짜야 할 것 같다”며 “사전 동의를 받아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10명 단위로 묶어 접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26일 부터 요양병원 65세미만 입원환자와 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1분기 접종 대상 기관 148개소 1만956명 중 1만351명(94.5%)이 동의했다.

백신은 25일 1만4200명, 26일 1만1000여명 접종이 가능한 분량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본부



23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동 소화누리 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모의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이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새학기 등교수업 확대” 광주시교육청, 학사·방역대책 발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3일 시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새학기 학사·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광주시교육청)

다가오는 새학기 광주지역 소규모 학교 등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광주의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개학 연기없이 오는 3월2일 정상적으로 새학기를 시작한다.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며, 원격수업 병행 때도 우선적으로 등교한다.

소규모 학교 등 등교수업 확대
화상수업 플랫폼 ‘미더스’ 구축
단위학교에 ‘심리방역단’ 구성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원격수업도 내실 있게 진행한다.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광주 화상수업 플랫폼 ‘미더스’(MeetUs)를 구축 운영한다.

‘미더스’는 광주시교육청만을 위한 학습관리 시스템이 포함된 원격 화상 플랫폼으로, 오는 3월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학생·교직원 2만 명 동시접속이 가능하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에 2635대의 PC를 지원했는데 올해 380대를 더해 총 3015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학교에 원격수업을 위한 1만1890대의

스마트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광주 전체 학교의 일반교실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한다.

시교육청은 무엇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학을 앞둔 24일부터 3월1일까지 광주 전체 유·초·중·고(분청·직속기관·대안학교 포함) 523개교를 27개 권역으로 나눠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 특별방역을 진행한다.

단위학교에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진 학생과 2주 자가격리 복귀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위기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학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 지도를 한다. 광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초학력 진단, 향상도 검사, 보정 자료를 개발해 운영한다. 초등 저학년의 한글과 수리력 책임교육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료도 개발·보급한다.

조인호기자

전남 주민 1인당 소득 낮은 이유 ‘역외유출 문제’

전남지역 1인당 생산액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낮아 소득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전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산단의 국제 비중 문제를 해소하는 등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감장 정책회의에서 “전남이 활발한 경제

활동에 비해 개인소득이 낮은 것은 개인·기업 소득의 역외유출과 국제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지사는 “제조업 종사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개인 주소와 기업 본사 이전 등 역외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교통에너지환경부와 법안제 등 국제 일부가 지역에 할당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 산 구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력

코로나19 방역에 국책사업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여름2지구 상가 상인회

코로나19 방역에 국책사업
친환경 마스크